

〈용문전〉 연구

이 지 하*

I. 서 론

조선조 후기의 군담소설은 주인공의 전쟁을 통한 영웅적 활약을 주내용으로 하며 판소리계 소설과 더불어 조선조의 대표적인 소설양식이었다. 영웅소설로 불리어질 수도 있는 창작군담소설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작품도 있는데 〈소대성전〉의 속편인 〈용문전〉도 그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필자는 아직 독립된 연구논문이 발견되지 않은 〈용문전〉을 논문의 주자료로 선택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른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용문전〉 또한 많은 異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 두가지의 善本을 골라 주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우선 크게는 경판본과 완판본 한가지씩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경판과 완판의 내용이 크게 달라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당시 서울과 전주가 소설 판본 보급의 대표적인 두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여러개의 경판본과 완판본 중에 한가지씩을 선택한 기준은 경판본 중에서는 가장 장수가 길어 내용이 상세한 것으로, 완판본 중에서는 〈소대성전〉과 합본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김동욱의 〈고소설방각본전집〉에 실린 경판 33장본과 국립도서관 소장 완판 40장본을 선택했다. 단 경판 33장본 가운데 누락된 부분은 을미석교신간(乙未石橋新刊) 대영박물관본인 경판 25

* 학부 4학년

장본에서 보충하기로 한다.

〈용문전〉에 대해서는 아직 단독 작품론이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작품 자체의 충실한 고찰을 주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이본 간의 비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용문전〉이 〈소대성전〉의 속편이므로 두 작품 사이의 관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총괄적으로 앞에서 살핀 내용들을 바탕으로 〈용문전〉의 문학사적 위치까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소대성전〉과의 관계

〈용문전〉이 〈소대성전〉의 속편임은 완판본 〈소대성전〉 말미에 “니 뒤 말은 하권 용문전을 보옵”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소대성전〉과 〈용문전〉이 합본되어 있고 또 용문전 서두에 소대성의 전후 수말이 소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으며 〈소대성전〉에 나왔던 등장인물과 그 자손들이 〈용문전〉에 등장하여 사건을 전개해 나가므로 두 작품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작형 소설이 가지는 구조적 반복원리의 도식과는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각각의 순차단락을 살펴보기로 하자.

〈소대성전〉

- (1) 대령 성화년간의 전 병부상서 소량이 자식 없음을 한탄하다.
- (2) 소량이 청용사 노승의 권유로 시주하다.
- (3) 부인이 동해 용자가 안기는 꿈을 꾸고 득남하다.
- (4) 대성의 부모가 모두 홀연히 병을 얻어 죽다.
- (5) 3년상을 치르고 기서 땅으로 떠나다.
- (6) 전 재상 이진이 대성을 데리고 가서 딸 채봉과 혼약을 경하다.
- (7) 이승상이 죽다.
- (8) 계실 장모인 왕부인과 처남 이생 등이 자객 조현을 보내 대성을 살해하려 하다.
- (9) 대성이 조현을 죽이고 집을 나가다.
- (10) 청용사 노승에게서 무예와 병서를 배우다.
- (11) 북홍노가 서신우와 합세하여 침입하다.
- (12) 대성이 노승과 죽은 이승상의 도움을 받아 전란을 평정하다.
- (13) 전쟁에서의 공로로 노왕이 된 뒤 왕부인과 이생을 용서하고 채봉과 재회

하여 결혼하다.

(14) 팔십일세에 승천하다.

<용문전>

- (1) 호국 강변의 용훈이 자식 없어 걱정하다가 득남하다.
- (2) 용문의 장래 배우자에 대해 용궁선녀가 예언하다. (경판)
- (3) 용문, 연화선생 밑에서 수학하고 하산하다.
- (4) 적토마와 용천검·갑주·부구를 하늘로부터 얻다.
- (5) 호국의 왕들이 합세하여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명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다.
- (6) 용문이 호국의 장군으로 출전하다.
- (7) 용문의 스승인 연화선생이 명나라를 도와 소대성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다
- (8) 전장에서 용문과 소대성이 격전하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다.
- (9) 연화선생이 용문에게 서찰을 보내 회유하다.
- (10) 용문이 개심하여 호국을 버리고 명국의 장수가 되다.
- (11) 호국에서 용문의 아버지인 용훈을 잡아 회유하나 거절하다.
- (12) 다시 격전하여 명이 호국을 멸하다.
- (13) 전쟁에서의 공로로 벼슬 책봉하다.
경판; 용훈이 호국왕 자리 사양하다.
완판; 용훈 호국왕 자리를 맡다.
- (14) 용문이 혼인하다.
경판; 예언대로 장승상의 딸 경아와 비자 이아와 혼인하다.
완판; 소대성의 딸 계춘과 혼인하다.
- (15) 용문 득남하여 이름을 용골이라 하였는데 기골이 장대하다. (완판)
- (16) 경판; 용훈부부, 용문부부 부귀영화 누리다가 승천하다.
완판; 노왕 소대성 죽다. (용훈이나 용문의 죽음은 나와있지 않다.)

조선후기 대하장편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작소설의 구성 원리는 유형적 인물군의 반복 출현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시키는 것이다.¹⁾ 즉 남성 주역군은 천상에서 하강→지상에서의 활약→천상으로의 회귀라는 영웅의 일대기에 부합하며, 여성 주역군은 흔히 혼사장애라는 시련

1) 연작형 고소설의 구조적 반복원리에 대해서는 이상택, '보월빙연작의 구조적 반복원리', 『한국고전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참조.

을 겪고, 비슷한 유형의 적대세력군이 존재한다. 변란의 내용과 위기를 처리하는 방법 역시 전·후편이 비슷하여 유형성·반복성·상투성은 등장인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 구조의 모든 측면에서 포착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전편과 후편은 거의 비슷한 사건 구조를 갖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용문전〉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대성전〉의 기본 구조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치되는 내용은 명국과 호국간의 전란에 영웅적인 인물이 개입하여 명의 승리로 이끈다는 것 뿐이다. 〈용문전〉에서는 〈소대성전〉에 나타나는 영웅의 시련도 없고 혼사장애도 나타나지 않는다. 〈용문전〉은 흔히 도식화되어 있는 ‘영웅의 출생—시련—입공—천상복귀’라는 영웅의 일생²⁾에 부합하지 않으며, 단지 유형적인 영웅의 모습을 보일 뿐이다. 즉 〈용문전〉은 영웅의 일생이라는 영웅 개인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기 보다는 영웅이 개입하여 이끌어 나가는 사건전개에 더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문전〉이 〈소대성전〉의 속편으로서 그 내용을 이어받아 사건전개에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소대성전〉이 소대성이라는 영웅적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 데 반해 〈용문전〉은 사건전개를 위해 용문이라는 인물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또 〈용문전〉에서 특이한 점은 용문이 원래 명나라 사람이 아니라 호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호국 장수로서 출전했던 그가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명나라의 장수가 되어 먼저 섬겼던 임금을 무찌르는 내용은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독특한 것이다. 이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중세의 보편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세의 보편적 세계관은 中華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하늘로부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중심으로서의 華와 그 번두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夷가 함께 공통적인 규범 아래 존재한다. 이 때 夷는 항상 華를 지향하는데 〈용문전〉에서 용문이 호국을 버리고 명을 택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화된다. 즉 명이 하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적자인데 호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하늘이 탄생시킨 용문은 당연히 하늘의 순리를 따라 명을 도와 호를 무찌르고 정통성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며 이는 중

2)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동아문화연구소, 1971.

원(中原)의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에 연결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용문전〉은 〈소대성전〉의 속편으로서 그 소재는 이어받았으나 그 내용은 훨씬 단순한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대성전〉과 〈용문전〉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과 〈용문전〉이 보이는 연작소설의 구조적 반복원리에서의 일탈로 말미암아 그 작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와 더불어 두 작품간의 좀더 밀접한 내적 연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연작형 소설에 있어서 전편과 후편의 작가가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고전소설의 대부분이 작자와 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의 내용이나 구조, 문체, 작가의식 등으로 작가가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소대성전〉과 〈용문전〉은 단편인 까닭에 그 내용이나 작품구조가 매우 단순하여 그것만으로는 작가에 대한 해명이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작품에 나타나는 문체의식³⁾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소대성전〉에서는 소대성이 부모를 여의고 가산을 탕진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력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와 그와 함께 허물어져 가는 도덕 등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 사회적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용문전〉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이어 받지 못하고 있다. 별다른 시련 없이 충성을 다해 전쟁에서 활약하는 인물을 그려냄으로써 흥미 위주의 군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의식 등이 개입할 여지가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p.495에 보던

“〈현세양옹쌍린기〉, 〈쌍천기봉〉, 〈보은기우록〉 등은 〈청백운〉에서 〈천수서〉까지와 같은 계열인데, 속편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루지 않았다. 전편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지닌 문제작이라 하겠으나, 더 길게 늘인 속편은 그렇지 않아 인습적인 가치관으로의 복귀를 표방하고 이미 있는 사건 유형을 부연하고 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간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전편이 인기를 얻자 다른 사람이 속편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다. 전편 말미에다 속편을 예고한 대목은 나중에 첨가했을 수 있다”고 했으며 같은 책 pp.497-498에는 “〈보은기우록〉은 18책으로 완결되었는데 거기다 빚대서 〈명행정의록〉이라는 속편을 지은 것이 무려 70책 또는 93책이다 되는 분량이다. 〈보은기우록〉에서의 아들이 낳은 여러 자식이 있어서 혼인하는 사연을 다룬다고 했는데, 줄거리는 이었지만 문제의식은 전혀 물터받지 못했으니 〈명행정의록〉은 〈보은기우록〉과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없다. 따라서 <소대성전>과 <용문전>은 각각 별개의 작가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이며 <소대성전>의 인기에 힘입어 후대에 후편을 첨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흔적은 작품 내용이나 구조면에서도 발견되는데 <소대성전> 가운데 용문의 개입에 대한 단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작품 말미에는 소대성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용문전>에서 소대성이 재등장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는 점이다. 작품 말미에서 속편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속편 서두에 전편의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은 후대에 얼마든지 첨삭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것이 동일인이 작가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후대의 작가가 왜 <소대성전>을 전편으로 삼아 그 속편을 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된다. 가장 일차적인 요인은 작품의 인기도 때문일 것이다. 당시의 상업적 작가층에게 어떤 작품이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속편을 제작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였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유행하던 소설은 <소대성전> 뿐만이 아니다. 당시의 작품이 출간된 횟수를 판각본에 한해⁴⁾ 살펴보면 <소대성전>이 11회, <조운전>이 16회, <장풍운전>, <유충렬전>, <장경전>이 5회씩⁵⁾으로 꽤 인기있었던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작가는 <소대성전>과 <조운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며 두 작품 가운데 <소대성전>을 선택하여 속편을 제작한 것은 작품의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편소설은 구조적 반복원리에 의해 속편을 제작하기에는 그 구조가 너무 단순하여 그 내용 중 핵심되는 것을 기본 모티브로 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그런데 <조운전>과 같은 경우는 영웅의 활약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국가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는 간신 일파를 제거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이때 사건의 결말은 충신에 의해 간신이 제거되고 그 가족들마저 적몰함으로써 완결된 구조로 끝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으로 속편을 꾸며낸다는 게 쉽지 않다. 반면에 <소대성전>에서의 외국의 침입이라는 모티브는 국가간에 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속편을 제작하기가 쉽

4) 판각본이 존재하는 속편은 전편의 활자본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출판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 판각본에 한하여 살펴보았다.

5) 서대석, 「군단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회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p.25.

고 더군다나 명과 호라는 두 나라를 통해 華와 夷라는 중세적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흥미 위주의 군담소설을 꾸며내는 데 적합했을 것이다.

Ⅲ. 경판본과 완판본의 비교

〈용문전〉의 경판본과 완판본은 그 내용이나 문체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용문이라는 영웅적 면모를 갖춘 주인공이 전쟁에 출전하여 공을 세우는 기본 골격의 같음을 제외하고는 출생, 결혼, 죽음, 그리고 그 부친의 행적까지 상당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차이점들이 발견되므로 이 글에서는 몇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인공의 출생과 혼인

경판과 완판 둘 다 작품 맨 앞부분에서 노왕 소대성의 전후수말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용문전〉이 〈소대성전〉의 속편임을 나타내주기 위한 상투적 허두라 할 수 있다.

작품의 본격적인 전개는 호국 강변(경판: 청수강가)에 용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대목부터 시작되는데 경판본에서는 용훈의 가계에 대한 설명은 나와있지 않고 그저 ‘농업을 힘써’ 산다고만 표현한 데 반해 완판본에서는 ‘셰디로 명가조손이라 본디 활노의 쓰지 업서 강호의 놀기와 동산의 밧갈기를 일습으니’라 하여 명가의 자손임을 명시하고 있다.

용문의 출생에 관해서는 용훈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한다는 대목은 일치하나 잉태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은 차이를 보인다. 경판에서는 부인 관씨가 어느날 청룡이 허리를 두르는 태몽을 얻어 십삭만에 아들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완판에서는 용훈과 부인 관씨가 태향산 천축사에 가서 기차치성을 드린 결과 관씨가 신장이 품에 들어오는 태몽을 얻고 십칠삭만에 득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산 과정에 있어서는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경판에서는 서해 용궁의 시녀가 나타나 출산을 돕고 후일 용문이 장승상의 딸 경아와 그 비자 이아와 혼인할 것을 예언하는 대목이 나타나지만 완판에서는 이런

장면은 전혀 설정되어있지 않고 대신 경판에 비해 훨씬 상세하게 용문의 기골장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앞의 출생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문의 출생시 경판에서는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예시가 있으나 완판에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개 과정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경판에서는 용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날 고기를 팔러 시장에 나갔다가 도인의 인도로 배우자가 될 경아와 이아를 만나 서로 신물을 주고 받는 장면이 삽입되어 출생시의 예언을 구체화하고, 후일 무공을 세워 장사국왕이 된후 ‘긴활의 살 둘 달닌자(활궁변의 긴장자 가진자=張승상)’를 찾아 그 두 딸과 혼인하게 되는 과정에 필연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완판에서는 실제로 혼인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으며 혼인 대상도 노왕 소대성의 딸 계춘으로 경판에서의 경아와 이아가 용모재덕한 현모양처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데에 반해 ‘창쓰기와 칼쓰기를 조와하며 녀더홍망을 들통하니 니는 친하의 녀중군즈라’하여 훨씬 군담소설의 영웅적 여주인공⁶⁾에 근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후대에 용문과 계춘 사이에서 또하나의 영웅을 탄생시키기 위한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자손의 탄생

조선후기 군담소설들은 가문소설⁷⁾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부친의 가계 혈통이 중시되며 주인공이 입공한 후에도 자자손손 번창한다는 결말 구조를 갖는게 보통이다.

〈용문전〉의 완판 역시 이러한 기본 구조를 벗어나지 않고 용문과 계춘 사이에서 더욱 기골이 장대한 아들 용골을 탄생시킴으로써 그의 비범함으로 후대에 큰 일을 이룰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한번은 소대성에게, 한번은 용문에게 패하여 두번이나 명국에 의해 크게 멸망한 호국의 제장졸들의 자손이 그 아비의 복수를 꿈꾸며 무예를 갈고 닦는 대목과 소대성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까지 빠뜨리지 않고 삽입하여 후대에

6)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7) 서대석, “유충렬전의 종합적 고찰”, 이상택·성현경 편,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참조.

다시 이들의 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용문전〉이 〈소대성전〉의 속편으로 지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조 후기 연작소설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또다른 제 3의 속편을 내놓기 위한 기저장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판에서는 용문부부 사이에서 자손이 출생한다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고 호국왕의 자손들이 등장하여 복수를 꿈꾸거나 노왕 소대성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단 작품 맨 끝에 용훈부부와 용문부부가 천수를 누리고 승천했다는 설명 다음에 ‘차시 왕이 치경호연지 십년이라. 왕과 왕비 또한 승피빅운호터 그 자손이 이어 국왕이 되미 선왕의 교화를 닦거 국토티안호러라’라고 하여 그 자손이 대업을 이었음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고전소설 말미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형식적 투식의 일종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판과 완판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용훈부부의 행적과 더불어 세계관에 밀접히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부친의 행적

〈용문전〉의 경판과 완판 내용 중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부친의 행적인데 초반부터 약간씩의 차이점을 드러내다가 결말 부분에 가서는 아주 상반된 자세를 보여 주목된다.

우선 주인공의 출생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용훈의 신분이 경판에서는 농업을 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 완판에서는 명문가의 후손인데 벼슬에 뜻이 없어 강변에 사는 산림거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용문이 호국의 장수로 활약하다가 스승인 연화선생의 서찰을 비밀리에 받아보고 마음을 돌이켜 명국의 장수가 되자 호왕이 크게 분노하여 그 아버지 용훈을 잡아다가 다시 호진으로 돌아오도록 회유하는 편지를 쓰라고 명을 내리는데 이때의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경판에서는 ‘문이 비록 자식이오나 임의 님군을 갈의여스오니 위천하지는 불고가라. 비록 글을 부치나 부질업도소이다.’라고 하여 비교적 온건한 태도로 거절의 이유를 밝히나 완판에서는 용훈의 태도가 자못 당당하다.

그는 아들이 돌아오게 편지를 쓰라고 권하는 호왕을 오히려 ‘눈을 부릅 뜨고 꾸지겨’, ‘법지불형은 즈승법지라. 선왕보통 법을 모르고 천의을 거스려신니 뉘을 끝으다하며 뉘을 율타하리노. 용은 용을 쪼고 영웅은 성쥬을 썩로논니 전하 일어트시하나이다.’라고 하여 선대왕까지 비난하고 도리어 명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호왕이 노하여 죽이려함에 도 굴하지 않고 ‘날을 어서 쥬기라. 근본죄익이 중하여 호지뵝성되미 불형이라.’, ‘자식이 역천하난 나라을 바리고 명국성쥬을 썩라간는거슬 그 아비 무슴말노 기유하여 역천하는 입군을 섬기라 하리요. 나를 어서 죽여 드러온 말슴을 여러순 마옵소서. 몸이 썰니고 마음의 분하물 이기지 못하는이다’하며 매우 완강한 태도로 호왕에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작품 전체에서 보여지는 완판본의 좀 더 뚜렷한 갈등 양상과 더불어 결말 부분의 벼슬에 대한 용훈의 태도에 연결되는 것이다.

작품 후반부에 용문이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 명천자가 벼슬을 내릴 때 용훈도 호국왕의 자리에 임명되나 경관에서는 끝내 사양하고 산림처사로 살기를 자처하여 물러난다. 때문에 용훈이 청수강가에서 처사들과 더불어 신선처럼 노닐며 늙어가다가 완월루에서 본국왕과 장료를 만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도가적 색채가 짙게 나타나며 죽음에 있어서도 부부가 한날에 흥했다 하여 평범하지 않게 그려놓고 있다. 그러나 완판에서는 이렇다할 갈등 없이 호국 제후왕이 되어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용훈 부부의 죽음도 나와있지 않고 어떤 신비한 요소의 개입도 없다.

(4) 이인의 행적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이인은 대세를 따라 명을 돕는 선인 연화도사와 천리를 거스르고 계교로써 호국을 돕는 악인 천관도사 두사람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천관도사의 행적은 양 판본에서 그리 큰 차이 없이 호왕에게 용문의 존재를 일깨워 장군을 삼도록 하고, 연화도사와 도술을 겨루나 패하고, 호국이 멸망한 후 죽임을 당할 찰나에 하늘의 도움으로 방송되는, 본래 하늘이 천관으로 묘사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연화도사는 용훈이 중앙의 벼슬을 받아 왕위에 오르느냐 산림처사로 남느냐와 비슷한 양상을 띠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판과 완판 모두 다에서 연화도사는 용문을 가르치고 또 그를 회유하여 명국장수가 되게 하고 명국을 도와 지혜와 도술로써 호국을 무찌르는데 많은 공을 세우는 점은 일치한다. 그러나 명국을 무찌르는 직접적인 결전 부분에서는 경판은 연화도사의 지략으로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완판은 용문의 계교로 설정되어 있어 용문의 장군으로서의 면모에 더 중점이 주어져 있다. 이는 작품 전반에 흐르는, 경판의 천리의 강한 개입과 완판의 비교적 현실적인 모습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승전 후 벼슬을 봉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더 많은 직접적인 공을 세운 경판의 연화도사는 오히려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겸손해하는 말을 남긴 뒤 공중으로 사라져버려 끝까지 도인다운 면모를 보이나 완판에서는 연화도사 역시 다른 장군들과 마찬가지로 벼슬을 맡는다는 대목만 있을 뿐 산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없음으로 미루어 흔히 호국왕으로서 태평성대를 구가한 것처럼 연화도사 역시 속세의 삶을 살아간 것으로 짐작된다.

(5) 세 계 관

고전소설이 세속소설로 완전히 이행하기 이전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이원적인 세계관은 이 작품에서도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인공은 하늘의 청용이나 신장의 하강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영웅적 인물이고 그를 돕는 이인 역시 현세의 인간과는 달리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도술을 부리는 천상적 인물로 표현되며 적대세력은 천상의 질서를 위배하여 지상으로 축출된 존재들이다. 따라서 작품은 하늘로부터 재주를 받은 주인공이 적대세력을 물리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영웅소설의 전개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세계 중에서 어디에 더 중점이 주어져 있느냐가 경판과 완판 사이에서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자.

우선 경판은 그 구조가 시종일관 천상계를 지향하고 있다. 중점이 지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천상의 우위에 주어져 있음은 주인공의 출생에서부터 나타나는 데 주인공의 지상적 위치인 가문은 별 관심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단지 신이한 능력을 지닌 하늘의 존재가 지상으로 적강했다는 사실만이 주요 관심사이며 때문에 주인공의 부친은 별다른 특징 없이 강가에서 농업을 일삼는 존재로 그려져도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농업을 일삼는다는 것은 신분이 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떨어져 자연을 벗삼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역시 천상의 신선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작품 말미의 신비한 도가적 분위기와 부합하는 것이다. 주인공의 혼인 역시 하늘이 미리 정해준 운명에 따라 순리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작품에서는 경관·완관 모두 혼사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인의 행적 역시 천상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난 후에는 현세에서의 지위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신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 내용 중 천상 지향적인 삶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부친 용훈의 행적이다. 용훈은 그의 자식이 공을 세운 덕으로 자신에게도 호국왕의 직위가 하사되지만 끝내 사양하고 청수강가의 처사로 남아 일생을 보내며 신선의 생활을 영위하다가 부부가 함께 승천한다. 용문 역시 지상에서의 교화를 마치고 승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의 삶은 영웅의 행적을 펼치기 위한 한 과정일 뿐 궁극적 도달점은 천상이라는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천상 회귀적 가치관 때문에 작품에서의 현실적 갈등은 그다지 치열한 양상을 띠지 않으며 천의의 순리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 양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 작품 속에서의 갈등 양상이 반드시 적대적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전소설, 특히 군담소설에서는 생활 속에서 개개인이 겪는 복합적인 심리묘사보다는 선과 악의 대립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보편적이고 특히 이 글에서는 적대세력간의 갈등만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물론 호국을 버리고 명국으로 옮겨가는 용문의 내면적 갈등이나 경관에서 끝내 왕위를 사양하는 용훈과 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용문 사이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갈등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단편적으로 서술되는데 그치므로 여기서는 좀 더 극렬히 드러나는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다.

작품 초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갈등은 서로 적대 세력으로서 전장에서 마주친 용문과 소대성의 대립이다. 두 사람은 싸움에서 우열을 가리

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각기 진으로 돌아간 후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판과 완판의 차이가 나타난다.

경판에서는 용문과 소대성이 싸움터에서 적으로 맞서 싸우기는 하지만 극렬한 적대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용문은 대성을 거의 죽일 뻔한 찰나에 그의 기상을 알아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여 투구를 내리침으로써 자신의 재주만을 맛보았다 하고 진중에 돌아와 대성의 위인됨이 뛰어난 것을 깨달아 호진에 몸을 맡긴 것을 후회한다. 대성 또한 진으로 돌아와 용문의 뛰어난 것이 자신보다 두어층이 위라하여 칭찬한다.

이에 비해 완판은 비록 뒤에 용문이 대성의 기상을 알아보고 호왕과 비교하여 상심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싸움에 임해서만은 훨씬 더 치열하다. 날이 저물어 진에서 용문을 불러들이자 소대성을 거의 베려하는 순간에 불러들인 것을 크게 불평하고 다음날은 반드시 ‘소대성과 명제를 베쳐 머리와 간을 너여 선왕의 신위에 제스항을거시니’라고 기염을 토한다. 소대성 역시 명진에 돌아와 용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판에서와 같이 그 재주에 탄복한 태도이기보다는 통곡을 하며 자신이 ‘조고만 혼 아이’를 당하지 못하여 슬프다고 한탄하고 있어 서로간에 훨씬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적대감의 크고 작음은 용문과 호왕 사이에서도 드러나나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완판은 경판에 비해 훨씬 현실지향적인 의식을 보여주고 있어 신비적인 요소가 결들여진 천상계로의 복귀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주인공의 출생에서부터 명문가의 자손임을 명시하여 지상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인시키고 주인공의 혼인에 있어서도 천상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현실적 조건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지상의 삶이 후대에까지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문보다 더욱 뛰어난 아들의 출생을 삽입시켜 놓고 있다. 스승인 연화선생의 태도도 경판과는 차이를 보여 산문을 나와 공을 세운 후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현세에서의 벼슬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판과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부친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면 완판에서의 용문은 현실에서의 중심적인 위치로 군림하는 명국을 흠모하여 이에 반란을 일으킨 호국에 대해 큰 반감을 표시하며 명이 승전 후 호국왕의 지위를

받아 치덕을 배운다. 그에게서 처사적인 생활에 대한 미련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작품 말미에서도 용훈이나 용문부부의 천상적 복귀로서의 죽음은 찾아볼 수 없다. 단 노국왕 소대성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천상적 질서를 강조하고 천상으로의 회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담긴 유언을 남김으로써 지상적 질서의 보존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용문전>의 경판본과 완판본은 천상계의 질서와 지상계의 질서를 따로 설정하고 천상계의 질서에 의해 지상계가 지배된다는 중세적 보편주의의 이원적 가치관에 따라 하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華와 그 주변적 존재로서 중심을 지향하는 夷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명으로 개표되는 華와 호로 대표되는 夷, 그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천상의 순리에 따라 華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경판본과 완판본에서 여러가지 상이한 점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세계관에 있어서 공통점 못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천상계를 지향하여 현실에서의 부귀영화 보다는 처사적 삶을 동경하는 경판본과 지상계의 삶에 더 우위를 두어 현실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완판본 사이에는 기본적인 대립요소가 존재한다. 학자들에 따라 전자의 성격을 띠는 소설과 후자의 성격을 띠는 소설을 나누어 신성소설과 세속소설⁸⁾로 부르기도 하고 이원론적 주기론과 일원론적 주기론⁹⁾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문전>은 그 두가지의 부류에 의해 확연히 갈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적 보편주의의 바탕 위에 양자의 특성을 경판과 완판이 각각 포함하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의 작품이므로 그 대립적 요소를

-
- 8) 이상택 교수는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中에서 신성소설과 세속소설로 고전소설을 구분하여 신성소설에는 주로 공동사회적인 인간상이 제시되었고 천상적 질서가 강조된 데 비해 세속소설에는 이익사회적인 인간상이 제시되어 그들의 갈등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인 쟁점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논했다.
- 9) 조동일 교수는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中에서 중세적 질서의 재확립을 위한 논리이며 영웅소설로 대표되는 이원론적 주기론의 소설과 근대적인 의식을 획득하면서 다른 전제의 개입 없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다룬 일원론적 주기론의 소설에 대해 논했다.

和와 爭이라는 개념¹⁰⁾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和란 보편적 질서에의 순응을 뜻하는 것이며 爭이란 보편적 질서의 간혀진 틀 안에서 벗어나 긴장과 갈등의 속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和의 성격이 강한 경판 〈용문전〉은 갈등보다는 화해를 지향하며 이미 마련된 천상의 질서에 순응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세계와 격렬히 부딪히는 삶보다는 한발 물러선 방관자로서, 현실의 갈등과 대립을 초월한 처사로서의 삶을 동경한다. 그러나 爭의 성격이 강한 완판 〈용문전〉은 적극적으로 현실과 대결하여 자신의 지위를 획득해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경판본보다는 완판본이 좀 더 후대적인 세속소설에 접근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6) 문 체

경판과 완판은 그 근간을 이루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문체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경판이 주로 간략한 표현기법으로 좀 더 고어투의 문체를 사용하였다면 완판은 경판의 내용을 풀어 쓴 듯한 인상을 받을 정도로 세밀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판에 비해 독자의 흥미를 끄는 중국 고사 중의 인물이나 어구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또 경판에서는 제사를 지냈거나 노래를 들었다는 정도의 약술로 처리한 부분에까지 완판은 일일이 제문이나 노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노왕 소대성이 증궁으로 더부러 후원의 울너 월색을 구하더니 문득 흠뻑 치운이 일며 풍중으로서 웨여 왈 노왕 전하는 증궁을 잠간 치우소서. 노왕이 경연하여 너전을 치우니 일위노승이 육환장을 집고 난간의 오르며 왈 농부는 무양하시나, 노왕이 놀나 자시보니 영보산 노승이라’(경판본)

‘노왕 소대성이 왕비를 다리고 후원의 드러가 명낭홀 달빛설 귀경하더니 문득 늙디호로서 힘풍이 훑쳐드러와 은은히 불너 왈 노왕은 잠간 증전을 치우소서 하거늘 노왕이 더경하야 즉시 증전을 치우고 섰더니 이득고 향취 친동하더니 뉘발노승이 육환장을 집고 난간의 울으며 왈 노왕은 기간의 무량하시잇가하거늘 노왕이 살펴보니 영보산 청용스 노승이여늘’(완판본) * 방점은 필자에 의한 것임.

10) 이 논문에서의 華와 夷, 和와 爭이라는 개념에 의한 구도는 학부 4학년의 <고전문학연습> 강의 시간에 조동일 선생님께서 시사받은 바 크다.

경판은 상황의 묘사보다는 사건의 전개에만 관심을 두고 서술하는데 반해 완판은 사건의 전달 뿐 아니라 수식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좀 더 그럴듯하게 꾸며냄으로써 흥미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유세차 모년 모월일의 대명국 노국왕 소더성은 비비 치제 우년회 산신지령 하음느니 턴지 성신문무하사 인덕이 스희에 덤혀 만민이 낙업하더니 이제 복회 턴조을 범하여 성민이 도탄하오미 턴지 조설을 느리사 더병을 총독하여 치라하시니 연화산이 쏘흔 턴조저계라. 신령이 또 엇지 명국 종사를 돕지 아니리오. 특별이 혼 싸흠의 복호를 함멸케 하소서. 복유 신령은 흠하소서’(경판본)

‘연화산 신령겨 비는이다. 이제 명천조 성신문무하스 덕뵈이 스희에 덤퍼있고 우순풍소하와 만민이 격양가을 부를제의 복적이 무도하여 천의을 비판하고 더명을 침노하오니 명천자 소더성으로 하여금 더역부도흔 복적을 파하라하온더 더성기력이 노년의 당하디 심니 부족하와 정성으로 발원하온이 본더 연화산은 명국싸히요 산신도 또호 명국 산신이라. 엇지 명국을 돕지 안이하오릿가. 실영은 하감하음서 즈악하온 장졸노 승견하겨하시를 발원하음느니 흠향하음소서’(완판본)

경판과 완판이 비는 내용은 비슷하나 전자는 제문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딱딱한 어투로 간략히 내용을 전달함에 비해 후자는 한문투로 된 제문의 첫머리 형식을 벗어버리고 아주 친근하고도 소상하게 사정을 아뢰고 있어 훨씬 강한 설득력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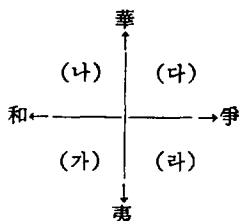
또 경판이 간략한 문체 속에 사건의 전달만을 주로 하고 있을 뿐임에 반해 완판은 ‘초피왕의 십만더병도 규니산 추야월의 옥통소 혼소리에 더호 강아지 쫓듯 하여잇고 역발산 기키세로도 오강의 진토되고 용봉산 연화더에 규족도 흘릴업다’ 등의 독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을 범한 고사들을 빈번히 사용하여 사건을 부연설명함으로써 강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고사의 인용이나 장면화는 세속소설의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의 판소리투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도의 판소리 사설에는 양반 좌상객을 의식해서인지 유식함을 뽐내는 듯한 어구가 많이 첨가되어 있는데 완판본 〈용문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지방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

격화된 딱딱한 설명의 틀에서 벗어나 발랄하고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완판에서는 그밖에도 호왕이 청수강가에서 초등의 노래를 듣고 용문을 찾는 장면, 용문이 연화선생의 서찰을 받고 답장을 보내는 장면, 연화선생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 등에 경판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노래나 편지, 제문의 내용을 일일이 실고 있어 훨씬 소설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즉 경판이 주로 사건전달을 위주로 하는 설명체로 쓰여졌다면 완판은 묘사체로써 생기 발랄한 언어 속에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세계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판본이 주로 주어진 세계의 틀 안에서 규격화된 정형성을 벗어나 버리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를 반영하는데 비해 완판본은 좀 더 자유분방한 사고 방식을 친근하고도 생동감 있는 언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문학사적 위치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토대로 문학사에서 〈용문전〉이 차지하는 위치를 논해보고자 한다. 우리 고전문학사의 전체 틀은 華와 夷의 대결을 한축으로 하고 和와 爭의 대립을 또다른 한축으로 하여 구별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표의 좌측은 갈등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부분으로서 그 극단에는 한문학이 위치하고 있고 華와 夷라는 중세적 보편질서에서 어느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 다시 (가)와 (나)로 나뉘어질 수 있다. (가)부분에는 세계와 자아의 본격적인 대결이나 사회적 갈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민담적 소설들이 위치한다. 미처 설화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

하지 못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단형의 단순구조 속에 커다란 충돌 없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아직 고전소설에서의 이원적 세계관이 자리잡지 않고 있다.

조화와 순응의 태도로 중세의 보편적 질서를 지향하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 속에 천상의 원리가 지상의 질서를 지배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조선조 후기의 신성소설¹¹⁾은 (나)부분에 해당한다. <구운몽> 등의 작품과 <소대성전>을 위시한 군담소설을 대표적 작품으로 꼽을 수 있으며 <용문전>의 이본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진 충돌 없이 온건한 태도로 천상 존재의 적망→천상의 도움으로 인한 입공→천상으로의 복귀라는 군담소설의 도식을 따르고 있는 경판본은 이 계열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도표의 우측은 소설에서 좀 더 근대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는 부분으로서 작품 내부의 갈등의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중세의 이원적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실생활에서의 삶의 문제들과 사회적인 도순 등을 자각하여 소설에 반영하게 된 것이 세속소설¹²⁾로 이야기되는 (라)이다. <춘향전>, <홍부전> 등으로 대표되는 판소리계 소설과 <양반전>, <호질>, <허생전> 등의 한문 단편소설, 그 밖의 애정소설과 세태소설이 (라)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이때 (나)와 (라) 사이에 위치한 (다)는 신성소설에서 세속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아직 중세의 보편적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華를 지향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변화하는 현실적 요소들의 영향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 현실 지향적인 가치관이 내재하고 있는 과도기적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신성소설에서 세속소설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의 작품으로서 <낙성비룡>, <낙천등운>¹³⁾ 등이 거론된 바 있으며 완판 <용문전>도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서 주목된다. 따라서 <용문전>의 완판본은 경판본보다 한결음 더 진전한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과도기적 위치 때문에 뚜렷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상업적 흥행성 위주의

11) 이상택·윤용식, 「고전소설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9.

12) 앞의 책.

13) 이상택 교수는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中에서 <낙천등운>을 분석하였다.

현실을 반영하여 흥미 위주의 군담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문학사의 전체 틀을 위의 도표와 같이 분류하여 볼 때 그 발전과정은 아직 소설의 완전한 형태를 가지지 못한 (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세적 보편주의와 이원적 가치관에 근거한 본격적 소설 시대의 (나)에서 이행기로서 중세와 근대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다)로, 다시 좀 더 근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세속소설로서의 (라)로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완판 〈용문전〉은 이 과정에서 그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학사의 전개가 (나)에서 (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적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됨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하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V. 결 론

조선 후기 군담소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던 작품에 속하는 〈소대성전〉의 속편인 〈용문전〉을 대상으로 전후편의 연관관계와 이본간의 비교, 그 문학사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그러는 가운데 華와 夷라는 중세의 보편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나아가 和와 爭이라는 또 하나의 대립적 축을 추출해냄으로써 이에 따라 작품의 내적 구조를 살피고 문학사적인 틀을 제시하여 〈용문전〉이 거기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혔다.

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판 〈용문전〉은 천상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갈등에 역점이 주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긴장된 소설적 흥미를 느낄 수 없고 경직되고 추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완판 〈용문전〉은 비록 중세적 보편주의에 입각해 있다 할지라도 천상적 질서보다는 지상의 삶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따라서 지상에서의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 대결하는 존재끼리의 갈등이 강하게 표출된다. 이는 작품에 긴장미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드러내줌으로써 흥미를 더해 일층 소설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판과 완판의 차이는 그 소설사적 차이를 드러내 주는데 경판 〈용문전〉이 아직 신성소설로서의 군담소설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작품이라면 완판 〈용문전〉은 좀 더 근대적인 성격을 띠고 세속소설에 접근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완판 〈용문전〉의 과도기적

작품으로서의 위치는 국문학사에서 소설의 진행 과정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행기적 작품으로서의 완판 〈용문전〉의 문제의식과 다른 작품들과의 상관관계 등은 계속 연구되어야 할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또 필자의 지식이 부족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華, 夷, 和, 淸 등의 철학적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 이상택·윤용식, 「고전소설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사, 1989.
 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이상택,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출판사, 198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8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이상택·성현경 편,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1.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대출판부, 1985.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연구”, 전북대학교원 박사논문, 1989.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이상택, 서대석, 성현경 편, 「한국고전소설연구」, 계명대출판부, 1974.
 정규복, 소재영, 김광순 편, 「한국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8.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